

일일 국제 기후·에너지 동향

석유·가스

◆ 알제리-모리타니 에너지·탄화수소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(주알제리대사관)

- 아르카브(Mohamed Arkab) 알제리 탄화수소·광물부 장관과 아잘(Mourad Adjal) 알제리 에너지·재생에너지부 장관은 2.15.(일) 알제리를 공식 방문한 Mohamed Ould Khaled 모리타니 에너지·석유부 장관을 만나 양국 탄화수소 자원 개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함.
- 아르카브 장관은 알제리가 모리타니의 탄화수소 자원 개발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, 탐사 및 생산 프로젝트 지원과 공동 투자 촉진, 특히 알제리 국영 석유·가스 기업 소나트락(Sonatrach)사와 산하 계열사들을 통해 탐사부터 생산·운송·정제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함.
 - 아울러, 아잘 장관은 전력 생산·송전·배전 분야 협력 확대, 전력망 연계 강화, 재생에너지 분야 공동 투자 기회 검토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양국 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, 알제리 국영 전력·가스 기업 소넬가즈(Sonelgaz)사가 모리타니 전력 인프라 개발 및 기술적 지원, 프로젝트 실행, 네트워크 유지 및 관리, 재생에너지 활용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
- 이에 모리타니 에너지·석유부 장관은 이번 방문이 알제리와 모리타니 간 견고한 협력 관계를 반영한다고 평가하며, 알제리의 탄화수소·광물·에너지 분야 선진 경험을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하고, 양국 간 기술·투자 파트너십 확대와 교육·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모리타니 천연자원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함.

◆ 카자흐스탄 카샤간 유전 증산 계획 지연 동향(주카자흐스탄대사관)

- 글로벌 에너지 조사 기관 업스트림(Upstream)은 카자흐스탄 카샤간 유전* 운영 컨소시엄 내부에서 확장 프로젝트에 필요한 가스 처리 시설 건설과 설비 교체 작업을 두고 지연 징후가 포착되었다고 보도함.
 - * 카자흐스탄 지역 카스피해 연안에 위치한 대형 유전으로 지난 30년간 발견된 유전 중 최대 규모로 130억 배럴 상당의 매장량 보유
 - 황화수소 함량이 높은 가혹한 환경 탓에 특수 장비 도입과 유지 보수에 예상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
- 카자흐스탄 정부는 생산량 증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, 참여기업들간 투자 지분 조정과 비용 회수 방식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며 최종 투자 결정(FID)이 미뤄지고 있음.
 - 현재 일일 생산량을 대폭 끌어올릴 2단계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, 2020년대 중반으로 예정되었던 최대 생산량 도달 시점도 함께 지연될 전망
- 이러한 지연은 국가 재정 수입과 대외 무역 수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바, 석유 업계 전문가들은 공급망 차질과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또한 프로젝트 진행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하며, 정부와 컨소시엄 간의 긴밀한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함. 끝.